

“친수공간사업으로 경기도 정책공모대상 받아” 최종환 파주시장 인터뷰



1 최종환 파주시장 2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감도 3 파주시청 전경

Q 지난해 경기도 정책공모 대상 받은 친수공간사업 계획은?

지난해 10월 27일에 열린 경기도 정책공모에서 31개 시·군 중 1위인 대상을 수상해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원을 확보했다. 파주시는 2018년 ‘평평한 마을조성사업’, 2019년 ‘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’에 이어 3년 연속 경기도 정책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총 220억원을 확보했다. ‘사람과 자연이 예술로 이어지는 경기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’은 개발 당시 획일적이고 특색 없는 공간으로 조성된 운정호수공원을 지역주민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이다.

Q GTX-A노선, 지하철 3호선 등 파주지역 철도 연장 추진 상황은?

GTX-A노선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도심도 도심 고속철도로, 노선 직선화를 통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안된 혁신적인 철도 교통수단이다.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. 또 파주시와 고양시는 지난해 11월 10일 ‘통일로선 전철사업 상생 업무협약’을 맺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.

Q 아주대병원 유치의 의미와 향후 계획은?

파주 시민들이 인구 50만 명을 눈앞에 둔 시점에 드디어 파주도 대학병원 시대를 열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. 개인적으로도 기쁜 마음이다. 대학병원이 지역 내 거점병원으로서 기능하고 시민들에게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. 동시에 통일을 대비한 남북평화의료의 선도적 역할과 메디컬클러스터 내 임상 연구의 중추적 역할도 담당할 것이다.

Q 아주대병원이 건립되는 메디컬클러스터는?

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4차산업 중심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민선 7기 역점사업이다. 혁신의료 연구센터 내에 약 200~300개의 의료바이오 기업을 유치해 수도권 서북부 최고의 의료바이오 집적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.

Q 현재 DMZ 관광과 방역 대책은?

파주시는 국내의 평화관광객 중 70%가 찾는 명실상부 대표 평화관광지다. 임진각 평화 곤돌라도 지난해 9월 정식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. 또 지난해 11월 28일부터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이 재개방됐다. 이밖에 안전한 DMZ관광을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 방역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. 하루 관광객 숫자도 200명 이내로 제한하고 곳곳에 방역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는 등 2중, 3중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코로나 확산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다. ♣



장단삼백



파주
한반도 평화수도

파주장단삼백

파주장단콩 · 파주개성인삼 · 한수위파주쌀